



# 비약하는 동중국 현장을 가다

<1> 인연은 돈이다

## ■ 與 '헌법포럼' 개헌논의 '백가쟁명'

열린우리당내 의원모임인 '헌법포럼'이 26일 주최한 헌법문제 간담회는 뚜렷한 지향점 없이 백가쟁명식으로 흐르고 있는 개헌논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다.

개헌의 필요성에서부터 시기, 의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간담회를 통해 여지없이 표출된 것.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개헌 필요성=개헌논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첨예하게 맞섰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것을 계기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1년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개헌논의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명림 교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 겹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상적 헌법체제와 사회질서를 빚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논의하는 게 결코 빠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논의 범위=개헌의 폭을 놓고서는 권력구조 개편논의에 국한하는 '최소 수준'의 논의와 헌법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고치

# 작은 인연도 훌륭한 문화관광 상품

중국 동해안 뿔트는 비약하는 중국 경제의 선봉장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한국 서해안과 맞닿아 있는 중국 동해안은 무역, 문화관광, 농수산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중국 단기 연수를 통해 들여다 본 중국 동해안의 산업별 발전상을 소개하고 우리의 대비책을 찾아본다.

중국에서 매년 맛으로 두 번째라면 서우해 할 산둥성(山東)성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다. 세계적인 맥주산지로 유명한 칭도(靑島)시를 비롯해 공자의 고향인 곡부(曲阜)가 모두 산둥성에 속해 한국인에게 친근하다.

근래 산둥성에서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곳은 석도(石道)시다. 한국인의 뇌리에 '영웅'으로 자리잡고 있는 해상왕 장보고 기념관이 자리잡은 적산법화원을 안고 있는 석도시는 중국 동북지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에 들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김구 선생 피난지를 찾을 수 있다.

### 김구선생 피난지 복원 떠들썩

김구 선생이 1932년 상해 흥구공원의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2년간 머물렀던 가흥은 지금 그의 피난지 복원사업 마무리로 떠들썩하다. 김구 선생 피난지는 지난 2000년 시(市)급 문화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5년 수리 후 성(省)급 문화보호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올해 5월 27일 기념관이 정식 개관했다.

최근 찾은 김구 선생 기념관은 개관이 얼마 안된 탓인지 이 방문객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사업에 나선 배경을 추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김구 선생이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데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의 하나인 항주, 상해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여서 방학을 맞은 학생 등이 밀려올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가느다란 인연만 있어도 곧바로 관광자원화해 돈벌이에 나서는 중국이 한국에서 추앙받는 김구 선생이 2년간이나 머물렀던 곳을 거만들 리 만무하다.

### 광주·전남 역발상할 때

광주·전남은 중국과 가장 풍부한 역사적 인연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 현대사와 땀 수 없는 이는 광주 출신 정용성 선생이다. 중국 공산당과 항일전투 및 혁명운동에 참여해 현재의 '인민해방군'을 작곡한 그를 중국인들은 혁명 열사로 받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주에서는 정용성 선생의 생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었다.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원'인 정용성이란 인적 자원을 이런 식으로 매몰시킨 것이 중국인들에게는 큰 웃음거리가 됐을 게 뻔하다.

여기에서 눈 먼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갔다가 '회계국'(지금의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 일원)의 국제상인인 심국공의 아내가 된 '심청' 이야기.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출병했던 명나라 진린(陳璘) 장군의 후예들이 선조를 기리며 건립한 사당인 해남군 산이면 황조리의 황조별묘(皇朝別廟). 진린장군이 중국의 군신(軍神)인 관우를 모셔 건립한 완도군 고급면 덕동리의 묘당도 관왕묘(關帝廟 關王廟). 화순 능주의 주자묘(朱子廟)도 중국의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계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부족한 자원만 탓하지 말고 조그만 인연도 소중한 자원으로 가꾸는 지혜가 절실하다.

### 한국인 5만명 찾은 법화원

장보고 기념관은 이 지역 대형기업인 '석도적 산수산집단'의 왕옥춘(王玉春) 사장이 전액 기부한 3억 위안(약 360억원)으로 지어져 지난해 4월 28일 문을 열었다. 법화원 자리에는 높이 8m, 무게 6t의 거대한 장보고상이 세워져 보는

이를 압도한다. 전체 부지 7천㎡의 기념관은 장보고의 일생을 5가지 주제로 나눠 꾸며져 있다. 기념관 관계자는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20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귀뜸했다.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방문객 중 4분의 1 가까이 한국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 개관 후 7개월여 동안 5만여 명의 한국인이 찾았다는 추산이다. 이쯤되면 중국의 장보고기념관은 문화유산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발길을 남으로 돌려 아름다운 서호(西湖)로 유명한 항주(杭州)에 닿은 후 인근 가흥(嘉興)



적산법화원의 장보고 동상(왼쪽)과 가흥에 복원된 김구 선생 기념관. 중국이 한국과 인연이 있는 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4년 중임제' 대세 속 시기·방법론 시각차

"87년 헌법체제를 갖고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개헌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포럼 소속 신기남 의원은 "우리 법의 근본이 어색하다"며 "개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송석윤 교수는 "정치권이 정치의 실패를 헌법의 실패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논의 시기=17대 대선(2007년 12월)과 18대 총선(2008년 4월)이 1981년 이후 20여년만에

는 '최대수준'의 논의를 주장하는 입장이 맞았다.

◇'4년 중임' 우세=정치권내의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4년 중임제'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헌법포럼 소속 신기남 의원은 5년 단임제 폐지와 4년 중임제 전환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홍익대 임종훈 교수도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제 폐지, 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내각제 내지 의원집중제 형태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 이라크 저항세력, 러 외교관 4명 살해


이라크에서 저항공격을 주도하는 알-카에다 조직에 납치됐던 이라크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명이 모두 살해됐다는 인터넷 성명이 나왔다.

무자헤딘 슈라 회의는 25일 이슬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비디오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바그다드 민수르 지역에서 납치한 러시아 외교관 4명을 모두 살해했다고 밝혔다.

무자헤딘 슈라 회의는 미군에 포살된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가 이끌었던 이라크 내 알-카에다 조직 등으로 구성된 저항세력의 연합체로 지난 20일 피살체로 발견된 미군 병사 2명을 납치한 조직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신의 심판이 집행됐다"며 이는 러시아 정부가 무슬림 형제자매들에게 저지른 고문, 살해, 추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알-카에다 로고가 박힌 이 비디오를 통해 눈에 안대를 한 인질 2명이 참수되고 다른 1명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지방유제품으로 만든 백미떡 유산 ]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한국유제품은 1968년 4월 15일 제정된 유제품 품질관리법 제정 이후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유제품 품질관리법 제정 이후  
백미떡 · 떡 유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 지방유제품으로 만든 떡 유산 ]

